**５年生以上―課題文⑥**

**등산**

오늘은 등산 가는 날

어제 싸 놓은 배낭을 메고

야호!　소리도 질러 보며

발걸음을 내딛는다.

버스를 타고 의자에 앉아 있으니

아침 햇살이 참 화창하다.

산 밑에 다달아 보니

만만치 않은 높이

저걸 언제 다 올라가지?

하고 생각도 해 봤지만

올라가기로 결심한다.

어휴, 힘들어!

산 중턱에 올라가다

힘이 들어 털썩 주저앉았다.

물을 한 모금 마시고

또 정상을 향해 간다.

헉, 헉. 드디어 정상이다!

정상에 있는 쉼터에 앉아

물을 마시며 쉬었다.

힘들지만 참 보람차다!

산 아래 경치가 참 끝내준다.

다음에 또 와야지.

이렇게 좋은 데를

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.

**登山**

今日は登山に行く日

昨日用意しておいたリュックをかけて

ヤッホー！とびながら

一歩をみ出す。

バスに乗ってイスにっていると

朝の日差しが本当にのどかだ。

山のふもとにたどり着くと

くはない高さ

どうやってまで登ろうか？

と考えてもみたけれど

登ることに決めた。

わぁ、しんどい！

に上がっていると

大変で、ぺたりと座りこんだ。

水を１飲んで

また頂上を目指して行く。

はぁ、はぁ。ついに頂上だ！

頂上にある休けい所に座り

水を飲みながら休んだ。

大変だけど本当にやりがいがある！

山の下の景色が最高だ！

次の機会にもまた来ないと。

こんなにもいいところに

来ないはずがない。